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5.(일) 12:00 (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3. 3.(금)
담당 부서	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	책임자	센터장 직무대리 허유정 (032-560-8389)
		담당자	연구사 김민섭 (032-560-8384)

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확대로 민관 협업 강화

- 국내 고유기술의 국가표준(KS) 및 국제표준화(ISO)추진 -

-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김동진)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*을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 및 국제표준(ISO)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(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)으로 3월 6일 추가 지정하고, 협업체계를 강화한다.

*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방사선산업학회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에프아이티아이(FITI)시험연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- ‘표준개발협력기관’은 지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 제·개정 업무를 지원하고,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의 개정수요를 찾아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.
- ‘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’은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일치화시키며,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선정 투표에 참여하거나 주기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.

-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토양,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.

* 유량, 지하수, 대기배출원, 대기환경, 실내공기질, 물환경, 방사능, 미생물, 토양, 폐기물관리, 생활소음, 교통환경, 포장환경성, 상하수도서비스, 고형연료제품, 제품환경성

-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△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폐기물관리 및 고형연료 분야를, △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분야를, △한국방사선산업학회는 방사능 분야를 지원한다.
- 물환경 분야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(2022년 3월)됐던 에프아이티아이(FITI)시험연구원은 해당 분야 국가표준 관리 종수가 지난해 99종에서 올해 20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106종과 관련된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세부분야가 추가 지정됐다.
- 2016년을 시작으로 제품환경성, 생활소음, 포장환경성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에 생활소음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.
- 그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은 대기환경, 제품환경성 등 11개 분야에서 지정돼 있었으나, 이번에 교통환경 분야(2024년 지정 예정)를 제외한 총 15개 분야로 확대 지정되면서 국내 환경기술의 고유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에 생활소음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환경 및 제품환경성 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이 끝났다.
- 국립환경과학원은 표준협력기관과 표준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업무협약을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또한, 2024년까지 교통환경 분야의 표준협력기관을 발굴할 예정이며 이미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 실무 교육,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“우리나라 주도의 환경 분야 핵심기술 세계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”이라며,
- “표준협력기관 또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찾아내고 표준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현황.
2. 표준협력기관 지정 현황.
3. 질의응답.
4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-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 제·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, 2개 기술심의회*와 16개 전문위원회**를 구성하였으며, 현재 311명의 환경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. 또한 전문위원회별로 국가표준 제·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,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(ISO)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.

* 기술심의회는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이며,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난 표준안의 적합/부적합을 심의한다.

** 전문위원회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, 국립환경과학원 내 11개 연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 각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산업, 학계,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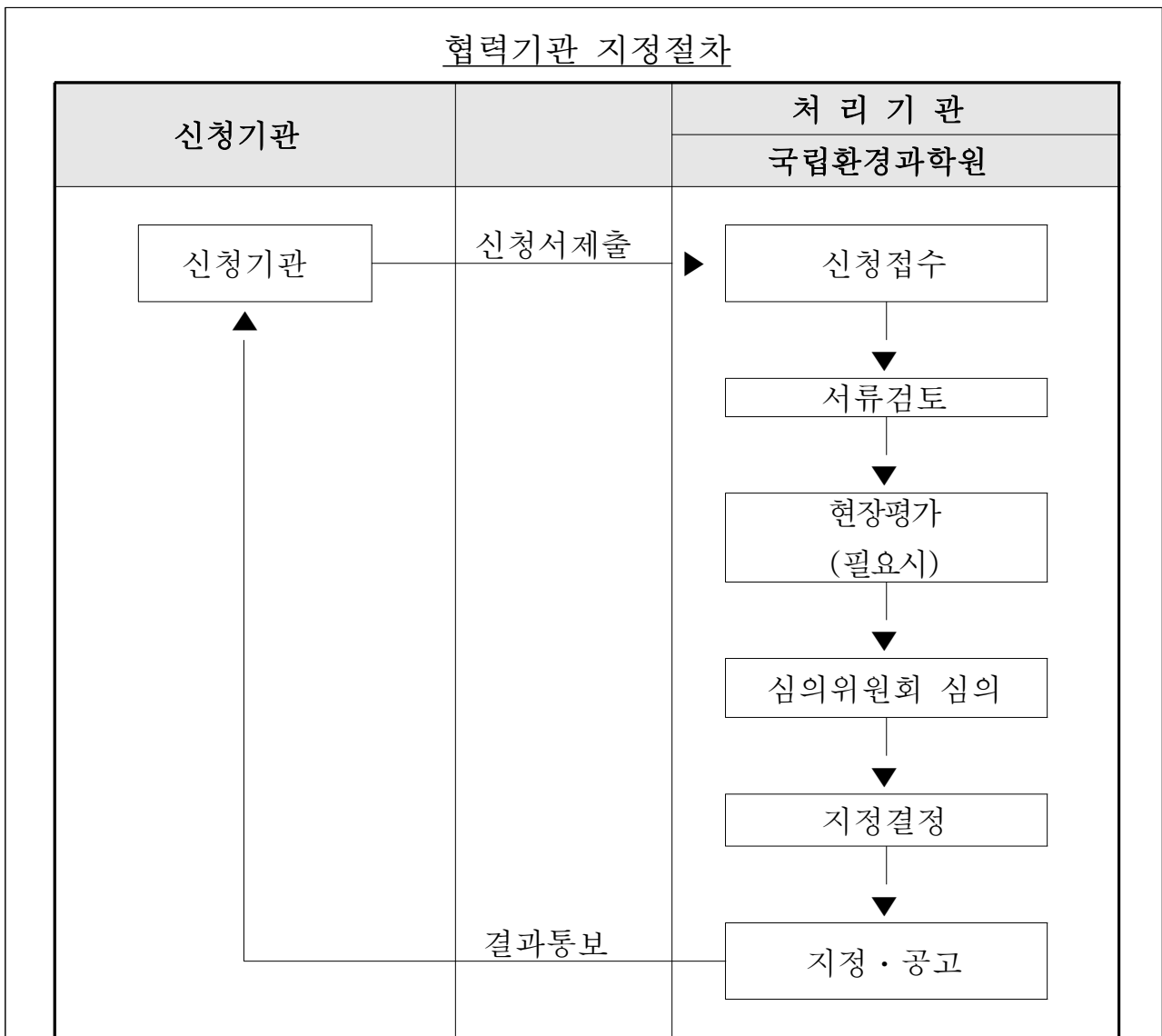


연번	전문위원회 분야	협력기관	최초지정일/연장일
1	제품환경성	한국환경산업기술원	‘16.3.14./ ‘21.3.18.
		한국물기술인증원	‘21.3.18.
2	생활소음	한국환경산업기술원*	‘16.3.14./ ‘21.3.18.
3	유량	한국수자원공사*	‘19.2.1.
		한국건설기술연구원*	‘19.2.1.
4	상하수도서비스	한국수자원공사*	‘21.3.18.
5	대기배출원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	‘21.3.18.
6	포장환경성	한국환경산업기술원*	‘21.3.18.
7	미생물	한국수자원공사*	‘22.3.21.
8	물환경	FITI시험연구원*	‘22.3.21.
9	대기환경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	‘22.3.21.
10	실내공기질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*	‘22.3.21.
11	토양	서울대학교*	‘22.3.21.
12	지하수	한국원자력환경공단*	‘23.2.28.
13	방사능	한국방사선산업학회*	‘23.2.28.
14	폐기물관리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	‘23.2.28.
15	고형연료제품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	‘23.2.28.
16	교통환경	미정	‘24년까지 완료

* 해당분야 ISO국내간사기관을 겸하여 지정

1. 표준협력기관 신청을 위한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는?
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(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)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중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8조(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)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검토, 현장평가, 지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과학원장이 지정·공고한다.



□ 국가표준(KS, Korean Industrial Standards)

- 광공업품의 종류, 형상, 품질, 생산방법, 시험·검사·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표준

□ 국제표준화기구(ISO,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

- 환경·기술·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. 현재 16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1개국 1투표의 의결권을 가지며, 산하에 기술위원회(TC, Technical Committee), 분과위원회(SC, Sub-committee)를 두고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한다.

□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, Co-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)

- 국가표준(KS) 제·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며 개정안 수요조사 및 기술검토, 개정안작성 등 전문위원회를 지원한다.

□ ISO 국내간사기관

- 국제표준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된 기관으로 표준화 해외동향 조사, 국제문서 조사·검토 및 국제투표 등을 지원한다.